

민속문화·세계유산
푸드아트 콘텐츠 즐기고

알짜 투어 '순천관광택시'
요금 50% 혜택 누리



순천시가 9월부터 11월까지 여러 축제를 연이어 즐길 수 있는 '2024 순천 가을페스타'를 개최한다. 사진은 왼쪽부터 지난해 열린 순천 푸드아트페스티벌, 순천시 세계유산축전, 제28회 낙안읍성 민속문화축제(부임행렬) 모습.

〈순천시 제공〉

'문화산업 메카' 순천...9월부터 11월까지 축제로 꽉 채운다

순천시가 축제의 계절을 맞아 '2024 순천 가을 페스타'를 준비했다. 19일 순천시에 따르면 그동안 산발적으로 개최된 축제를 통합·연계해 순천의 생태철학이 녹아들도록 리브랜딩하고, 관광객이 급증하는 9월부터 11월까지 다채로운 축제로 채운다. 먼저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중앙로, 문화의거리, 남문터광장 등 원도심 일대에서 '길 위에서 맛나는 맛'이라는 주제로 눈과 귀가 즐거운 '2024 순천 푸드아트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올해로 8회차를 맞은 축제는 맛의 고장 순천시의 대표적인 미식축제인 동시에 순천의 문화·예술 콘텐츠를 한자리에 만나볼 수 있는 인기 행사다. 특히 축제에 앞서 순천시 관광과 사무실에서는 28일까지 푸드아트페스티벌 상품권을 5% 할인 판매한다. 사용 기한은 10월2일까지로, 행사가 끝나도 인근 상품권 가맹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10월에는 순천의 고유한 자연과 유산을 바탕으로 연이어 축제가 개최된다.

그 시작은 10월1일부터 한 달간 열리는 2024 세계유산축전-선암사·순천갯벌'이 알린다. 이번 축전은 세계유산거점인 선암사와 순천갯벌, 그리고 도심확산공간인 오천그린광장 일원에서 펼쳐지며, 기념식은 10월5일 오후 6시 오천그린광장에서 진행된다. 가을 여행지로 순천과 낙안읍성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면 10월3일부터 5일까지 열리는 제20회 순천 낙안읍성 민속문화축제를 주목해 보자.

낙안읍성과 뿌리깊은나무박물관 일대에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낙안읍성의 대표적인 민속 축제로, 성곽쌓기, 전통혼례, 장승밟기 체험, 가마장군 순라 의식 등 다양한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갈대군락지가 이루는 절경과 다양한 철새를 만날 수 있는 제20회 순천만 갈대 축제 또한 놓쳐서는 안 될 행사다. 28일부터 27일까지 개최되며, 특히 이번 축제에는 순천을 방문했던 웹툰 작가 기안84의 제안에서 출발한 '뽕뽕어 달

리기 대회'가 예정돼 있어 전국적인 이목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대중교통으로 순천을 찾은 관광객들을 위해 '순천 관광 특별 할인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는 순천시에 등록된 베테랑 기사들이 알짜 관광지만 쏙쏙 데려다주는 관광택시를 3개 코스로 운영하고 이용 요금의 절반을 순천시가 지원하는 행사다. 단, 여행 5일 전까지 사전 신청해야 하며 선착순 마감이다.

순천시가 올해 최초로 시도하는 '2024 글로벌 콘텐츠 페스티벌 in 순천'은 시의 'K-디즈니 순천' 비전을 본격화하기 위한 테스트베드다. 11월1일부터 3일까지 순천만국가정원 및 오천그린광장의 푸른 무대 위에서 펼쳐진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올 가을에는 원도심부터 낙안읍성, 순천만에 이르기까지 도시 곳곳이 축제로 가득 차는 순천에 방문해 2024년의 한 페이지를 즐거운 추억으로 채워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순천=양홍렬 기자



최근 고흥드론센터에서 '국립순천대학교 우주항공 고흥캠퍼스' 개소식이 열렸다. 사진은 개소식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고흥군 제공)

순천대, 지산학 우주항공 고흥캠퍼스 개소

3D 스캐너 활용 비행체 제작·시험비행 등 강의

국립순천대학교 글로벌대학30 사업의 지산학캠퍼스인 '우주항공 고흥캠퍼스'가 문을 열었다. 19일 고흥군에 따르면 순천대 우주항공 고흥캠퍼스는 지난 8월29일 지산학 캠퍼스 중 처음으로 문을 연 스마트팜 고흥캠퍼스에 이은 두 번째 캠퍼스로, 우주항공 특화분야 인재 양성 관련 기술 연구 공간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이번 행사에는 조대정 고흥부군수,

문승태 순천대 부총장, 순천대 학생·교직원, 우주항공·드론 관련 기업 대표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흥군의 두 번째 국립대 지산학캠퍼스 개소를 축하했다. 고흥캠퍼스는 고흥군의 우주발사체 및 미래항공 산업 인력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며, 올해 드론센터 내에서 3D 스캐너를 활용한 비행체 제작 및 시

험비행, 드론 기술 습득 및 활용 능력 향상 프로그램 등의 강의를 진행될 예정이다. 순천대학교는 2027년까지 13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우주항공 정주형 청년 인재 800명 양성 ▲우주항공 인공지능(AI) 융합 연구센터 1개소 설립 ▲고흥형 강소 지역기업 20개 육성 등을 목표로 지역산업 맞춤형 전략을 단계적으로 실현할 계획이며, 고흥군은 대학과의 연계·협력을 통해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방침이다.

조대정 부군수는 "순천대 우주항공 고흥캠퍼스가 우주항공 분야 우수인력 양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글로벌 지산학 협력의 표본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미래 전략산업인 우주발사체와 미래항공 분야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구축, 미래 항공기 평가 기반 구축 사업 등 대규모 핵심 국책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고흥=최봉환 기자

장흥군, 범죄 우려 빈집 정비 '속도'

농어촌 정비법 개정...철거 명령·이행 강제금 부과 가능

장흥군이 농어촌 정비법 개정에 따라 빈집 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19일 장흥군에 따르면 개정된 농어촌 정비법이 지난 7월3일부터 시행되면서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제도 및 특정빈집 이행 강제금 부과 등이 가능해졌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농어촌 마을(동·리)에서 빈집이 최소 10호 이상이거나 빈집 비율 20% 이상인 경우 우선정비구역 지정 제도를 지정할 수 있다.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집을 개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법' 등에 따른 견폐율·용적률·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 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다. 또한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경관훼손 우려가 높은 특정빈집은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5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수리·위해요소 제거 등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2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장흥=노형록 기자

화순군청 전기차 충전 구역 전기화재용 소화기 비치 화순군은 "최근 전남 최초로 전기차 전용 소화기를 청사 내 전기차 충전 구역에 비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엔 비치한 소화기는 국내 최최소한 국소방산업기술원의 적응성 형식 승인을 받은 전기화재용 소화기(C급 승인, 비전도성 액체)로 감전 위험이 없고 인체에 무해해 밀폐된 지하나 실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물보다 뛰어난 냉각 성능을 보여 배터리 화재에 적합하다. 화순군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복합화재 대응을 위해 국가검정을 거친 소화기를 청사 전기차 충전 구역과 지하 전기 시설에 비치해 초기 대응력을 높였다. 최기운 재무과장은 "이번엔 비치한 소화기는 공식 승인을 받은 제품으로 전기화로 인한 화재뿐만 아니라 전기 설비에 대한 화재 대응에도 효과적"이라며 "관내 전기차 충전 구역의 안전을 위해 추가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화순=이병철 기자

"메타버스로 도로명주소 공부해요"

구례군, 초등 3-4학년 대상 디지털 맞춤 교육

구례군은 "최근 이틀간 전남도와 함께 토지초등학교, 광의초등학교 내 전산교육장에서 관내 3-4학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지니버스를 활용한 도로명주소 교육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 지니버스는 행정안전부와 KT가 공

동 개발한 메타버스 플랫폼 디지털 교과서로, 가상공간에서 나만의 공간을 꾸미고 생성형 AI로 아바타 메시지나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다. 학생들은 가상공간에서 도로 유형(대로·로·길)별 도로 건설 및 건물 건축, 건



물 유형별 번호판과 도로 방향 도로명판 제작·설치, 시설물에 설치된 사물 주소 등을 체험하며 도로명주소 체계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구례=임종길 기자

담양 담빛음악당서 영화 '탈주' 무료 상영

오늘 오후 7시 찾아가는 영화관

담양군은 19일 "20일 오후 7시 관방제림 및 담빛음악당에서 지역 주민과 방문객을 위해 무료 영화 상영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상영작은 액션과 드라마가 결합한 한국 영화 '탈주'로, 박진감 넘치는 이야기와 뛰어난 연출로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한다. 이번 행사는 '찾아가는 영화관 사업'의 하나로, 담빛음악당을 운영하게 된 작은영화관 주식회사에서 지원해 주민들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고 추석을 맞아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여가 시간을 선물하기 위해 기획했다. 남녀노소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야외 돛자리와 간단한 먹거리를



를 가지고 방문해 담양의 아름다운 담빛음악당에 앉아 영화를 감상하며 자연 속에서 특별한 저녁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윤재득 문화체육과장은 "이번 무료 영화 상영을 통해 무더위에 지친 주민과 관광객들이 영화 관람과 함께 즐겁게 가을을 맞이하길 바란다"며 "내년부터는 야외 돛자리 영화 상영을 정기적인 문화 행사로 발전시켜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장성 'K-푸드', 미국 시장 본격 진출

쌀과자 등 2회 걸쳐 10개 업체·21개 품목 수출길

장성군은 "최근 장성군 소재 ㈜현대푸드시스템에서 'K-푸드' 미국 진출 선진식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선진식에는 김한중 장성군수, 박현숙 전남도의회 의원, 신현곤 전남도 국세청장, 나문선 농협중앙회 장성군 지부장, 수출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K-푸드' 해외시장 진출을 기념했다. (사진) 총 2회에 걸쳐 10개 업체 21개 품목의 장성산 'K-푸드'가 미국에 수출될 예정이다. 최근 첫 선진식에서는 ▲올바름 쌀과자 ▲누리미 전통 누룽지 ▲가운참돌 오란다 ▲㈜우진식품 홍길동 김부각 ▲

산들래 전통식혜 ▲장성군농협공동사업법인 365쌀 ▲㈜현대푸드시스템 냉동감말이 뉴욕 수출길에 올랐다. 9월 말로 예정된 2차 선진식에선 추 가격으로 ▲새벽밥 김치 ▲㈜하북식품 사업단 장류 ▲㈜지원 나물밥 3종을 엘리(LA)에 수출한다. 김한중 군수는 "전국적인 쌀값 하락과 이상 기후로 농업 현장의 시름이 큰 상황에서 장성산 'K-푸드'의 미국 시장 진출 소식이 '희망의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며 "장성을 넘어 맛의 고장 전남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을 그날까지 함께 발로 뛰고 맘 흘리겠다"고 말했다. /장성=김태기 기자